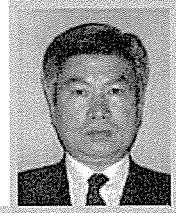


E-Biz 사회와

時空革新



중앙대학교/경영대학부 교수 김길조

컴 퓨터通信이 發達하여 새로운 E-Biz(電子商去來)를 活化 시키고, 전자결제 시스템과 Global 物流시스템이 우리의 生活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Digital 경제라고 불리우는 현실 世界의 變化는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크게 변화시켜야겠고, 또 생활양식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未來學者들이 Digital세계를 예견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向後 10年, 20年 후면 크게 바뀌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아직도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일」 터와 「일」 하는 시간, 卽 時空에 관한 분야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8시간 일한다는 고정적인 「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한 뒤, 교통편을 이용하여 나가서 오전근무를 하며 점심 시간이 닥쳐오고, 점심 먹고나서 오후 근무 시간을 마치면, 한 잔 걸치거나 집

으로 向하게 된다.

낮에 8시간 내지 10시간 근무하고 나면, 집에서 12시간 이상을 TV 보거나, Internet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거나, 잡담하거나, 책을 보거나 어쨌든지 소일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 가끔(대부분인지 모르지만) 저녁식사나 술자리가 생기면 좀 더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문제 앞으로 Digital 시간, 전자상거래 시대에 직장이라는 고정적인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꼭 Rush Hour 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在宅근무를 활성화하고 근무시간의 개념을 24시간대로 확산시켜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시간대만 8시간 정도 잡아서 일을 처리하면 되도록 혁신하자는 이야기다.

싱가폴 같은 나라는 우선 대학 등 직업교육제도가 완전히 2교대 방식으로 주간에는 야간에 직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다니고, 야간에는 주간에 일하는 학생이 다니도록 함으로써 24시간을 적절히 2교대 방식으로 12시간씩 쪼개서 쓰고 있다. 이러한 대학 등 각급 직업교육기관이 사회생활에 실용적으로 돕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학교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업무능률 향상과 관계가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우선이며, 좀 더 높은 자리에 필요한 人材의 양성은 소수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로 교수요원이나 전문가를 공모하여 충원하고 있다.

그러니 직장에서의 활동은 Global Economy를 쫓은 지구촌 전체를 볼 때에는 24시간 동안 계속 전자상거래가 지구 반대편에서(동양권이 잠자는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Network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서 국가적인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근무하는 장소가 꼭 고정적인 빌딩안에 있는 사무실이여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在宅근무도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시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문제, 학교진학문제, 일자리 창출문제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일 할 수가 있어서 국민소득 향상도 되겠지만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실례를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돋보이는 福祉國家로 뛰어오르려면 직장의 근무시간과 작업장에 대한 時空의 벽을 깨트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認識의 전환이 꼭 있어야 하겠다. 노동법 개정을 통한 야간수당, 야간특근, 심야요금 등 가격대의 차별도 없어야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